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Rockefeller College (SUNY Albany) / (국가) 미국 Public Administration		
기 간	2013.1.1.~2013.12.26 [귀국일: 2013년 12월 2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4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인)

GMP 2년차 보고서

1. 대학원 소개

뉴욕주립대학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은 뉴욕주 전역에 퍼져있는 크고 작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총 64개. 그중에서 박사과정을 겸비한 가장 유명한 4개의 4년제 대학은 버팔로 대학 (University at Buffalo), 빙햄튼대학 (Binghamton University), 스톤브룩대학 (Stony Brook University), 그리고 올바니대학 (University at Albany)이다. 1844년에 최초설립된 올바니대학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계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학생수 17,000명중 5,000명이 대학원생. 올바니 대학은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주캠퍼스는 Uptown Campus, 주요 전문학과들이 밀집한 Downtown Campus, 그리고 여러 전문 Biomedical sciences의 실험실이 있는 East Campus가 있다. Downtown Campus의 경우에는 정치학과, 행정학과, School of Criminal Justice, 사회복지학과 (School of Social Welfare), 정보학과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Policy)의 소수이지만 우수한 학과들이 위치하여 많은 외국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한국학생들도 다수 있다. 사회복지학과 미국내 20위권내 (faculty research로는 5위권내), School of Criminal Justice 미국내 5위권내, 행정학과 (Rochester College of Public Administration)는 10위권내로 각 학과들이 미국내 우수한 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같은 평가는 올바니가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이한 것이다. 공과대학과 같은 실질적인 과가 없는 학교임에도 올바니는 문과 분야에서 그 위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교수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학교의 관심과 보조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내에 있는 이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외국 대학원생들에게 assistantship과 나중에 직장을 구하는데 귀중한 도움이 되는 사회경험을 마련해주고 있다. 행정학과는 경우 주도라고 하는 올바니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연스레 주정부기관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여성학과, 심지어 사학과와 공중보건, 생물의학 관련학과들도 모두 공공정책에 관련된 공부가 강조되는 것도 이와 같은 올바니의 정치적 위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Albany 소개

뉴욕이라는 이름이 한국사람들에게 연상시키는 모습은 NYC, 즉 맨하탄의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뉴욕은 미국에 있는 50개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글 모음중 "ㅏ"처럼 생긴 뉴욕주는 서쪽끝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유명한 버팔로가 있고 남쪽끝에는 NYC, 그리고 북쪽끝은 캐나다 국경과 접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매사추세츠와 버몬트 주들과 접하고 있다. 약 3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올바니는 동쪽면에서 중앙에 위치한 뉴욕주의 주도로 오래전부터 미국북동부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다. 맨하탄(남쪽)까지는 2시간 반, 하바드 대학과 MIT등 유명한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보스턴(동쪽)까지 3시간, 나이아가라 폭포(서쪽)까지 5시간,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북쪽)까지는 약 4시간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올바니는 북동부를 구경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한국에서의 이동시간을 생각하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길이 넓고 길게 뻗은 이곳에서 운전거리가 이정도라면 짧은편에 속한다. 그런면에서 여섯, 일곱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도 여행을 가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부의 사막이나 중동부의 평지와 달리 산맥을 끼고 있어 여름에는 계곡으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가서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3. 초기 생활 적응

올바니 대학 행정학대학원(Rochester College)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 교수님이 GMP

87 HOEGIRO DONGDAEMUNGU, SEOUL 130-868, KOREA

TEL: 82-2-3299-1021 FAX: 82-2-3299-1232

Homepage: <http://www.kdischool.ac.kr>

과정 학생들을 전담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다. 1년 과정인 GMP 학생으로서는 초기 정착에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줄임으로서 유학생들을 훨씬 유익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일단 출국 전 이미 아파트 렌트나 차량, 생활용품 구입 등을 미리 현지 분들을 연계 받아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출국을 하였고, 공항으로 교수님과 박사과정 조교분이 픽업을 나와 주어 외국 생활의 시작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이전에 유학생들을 하시던 분에게 아파트와 생활용품 등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바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편했다. 진학할 학교를 미리 정한 후에는 GMP과정으로 전해에 유학을 나와 있는 동문이 있다면 연락하여 미리 물품 등을 인계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핸드폰 개통이나 은행 통장 개설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조교분이 같이 동행해 도와주셔서 쉽게 해결하였고, 주변 지역과 생활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안내하여 주었다. 차량 구입 및 차량 보험 가입, 등록 등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큰 실수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초기 적응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묻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수님이나 조교, 또는 주변에 한국인 학생 등 미리 현지에 계시는 분과 연락을 해 두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괴로워 하지 않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대학원 생활 소개

우선 대학원에서 MPA학위를 받기 위해 총 이수해야하는 학점은 49학점 (4학점 과목 11개 수강 + 2학점 과목 2개 + 1학점 논문(에세이)과목) 이다. KDI에서 총 6개 과목 (3학점이지만 4학점으로 인정하여 총 24학점)을 transfer하게 된다. 결국 올바니에서는 "4학점 5과목 + 2학점 2개과목 + 1학점 논문" (총25학점)을 수강하게 된다. 이때 학위를 위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하는 core과목들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시 선택이 폭이 넓은 것은 아니다. 1년만에 학위를 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수해야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보통의 경우 core(필수)과목 총 9과목 (29학점) 가운데 2과목(8학점 해당)은 KDI에서 transfer하고 나머지 7과목 (21학점)은 올바니에서 수강한다. Proposed courses (전공선택과목)은 총 5과목 (20학점)을 수강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4과목 (20학점)을 KDI에서 transfer하게 되므로 결국 1개과목 (4학점)을 올바니에서 수강하는 것이 된다. 첫학기 (봄학기)에는 PAD500 (행정학 개론에 해당), 501 (공공재무관리), 504 (데이터, 모델, 의사결정론), 508 (세미나 수업)을 수강해 총 14학점을 획득하고, 가을학기에는 PAD506 (행정학), 507 (세미나 수업), 509 (연구 수업), 그리고 선택과목 1개(본인 선택)를 수강하여 총 11학점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학대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거나 인턴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저녁수업이 많다. 더구나 GMP과정으로 봄학기, 가을학기 순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이수해야 할 core수업이 대부분 1강좌만 개설되어 저녁수업을 위주로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다.(가을학기에는 core수업이 2-3 강좌씩 개설이 되고 시간 선택의 폭이 크므로, 1년차 가을학기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이 중간관리자로서의 소양인 협업 등에 초점을 두고, 그룹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도록 과제를 준다. 따라서 외국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그룹 워크를 해야하며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준비를 많이 해 오는 것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다. 수업은 대부분 많은 양의 아티클을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토론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아 쉽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크게 우

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5. 주거 및 일상 생활 관련 소개

내가 살았던 아파트는 올바니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길더랜드 지역의 Heritage Apartment였다. 침실하나에 거실하나가 딸린 아파트로 중간정도 수준의 아파트였는데 한달 렌트비가 난방 및 온수 포함하여 975불이었다.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마트와 편의시설이 가까운데다, 학군도 좋아 한국인 유학생 및 주재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다. 렌트비를 좀 아끼고자 한다면 (또한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다운타운 캠퍼스 근처에서 룸메이트를 구해 거주하거나 조금 좁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데 600불에서 1000불 사이였던 것 같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올바니 대학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버스 정류장 근처 아파트들은 시설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인터넷과 케이블 티비는 타임워너 케이블이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라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볼 수는 없었지만,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게임 등을 할 것이 아니라면 큰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알바니에는 작은 한인마트가 있어 사실상 식생활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웬만한 한국 식품은 다 구입할 수 있으며, 없는 물건의 경우 인터넷 상으로 H마트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미국 내 배송이 느리다고는 하지만, 사실 2-3일이면 식품을 받아볼 수 있었다. 대형 마트도 여러군데 있어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 공산품, 육류, 의류가 한국에 비해 저렴한 것 같았다. 입국시 굳이 한국식품이나 물건 등을 많이 구입해 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타지에서의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GMP 2년차 기간은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즐겁게 생활했던 시간이 되었다. 현지에 계시는 교수님과 한국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생활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물어 물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와는 다른 커리큘럼과 다른 방식의 공부할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즐거웠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다.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낯선 문화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생활을 해 나감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더불어 봄방학 2주, 여름방학 3개월, 그리고 각종 휴일에 미국 전역을 여기저기 여행다닐 수 있었던 것도 큰 기쁨이었다. 미국 서부와 동부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도시들과 관광지들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었다. 캐나다와 멕시코 시티도 다녀왔다. 평생 이렇게 마음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기회가 또 있을까 싶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걱정을 했었지만, 대행업체 없이 직접 비자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았다.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된다. 출입국시에는 (유학중 여행할 때도 동일함) 입학할 학교에서 받은 어드미션과 I-20를 반드시 잘 챙겨서 다녀야 한다. 첫 입국후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할 때 학교에서 I-20에 확인 서명을 받아서 가야 하며 (학교에 학생이 소속되어 공부하고 있다는 증명임) 그래야만 재입국을 할 수 있다. 캐나다 여행후 입국시에 I-20를 바로 제시하지 못해 한참 실랑이를 벌였던 경험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이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잘 챙겨서 다녀야 한다.

1년을 체류하는 GMP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한다. 한국면허를 바로 인정

해 해당 주 운전면허로 바로 바꿔주는 주가 있는가 하면 뉴욕주의 경우는 새로 면허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타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언어가 부족하다고 해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으니 너무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